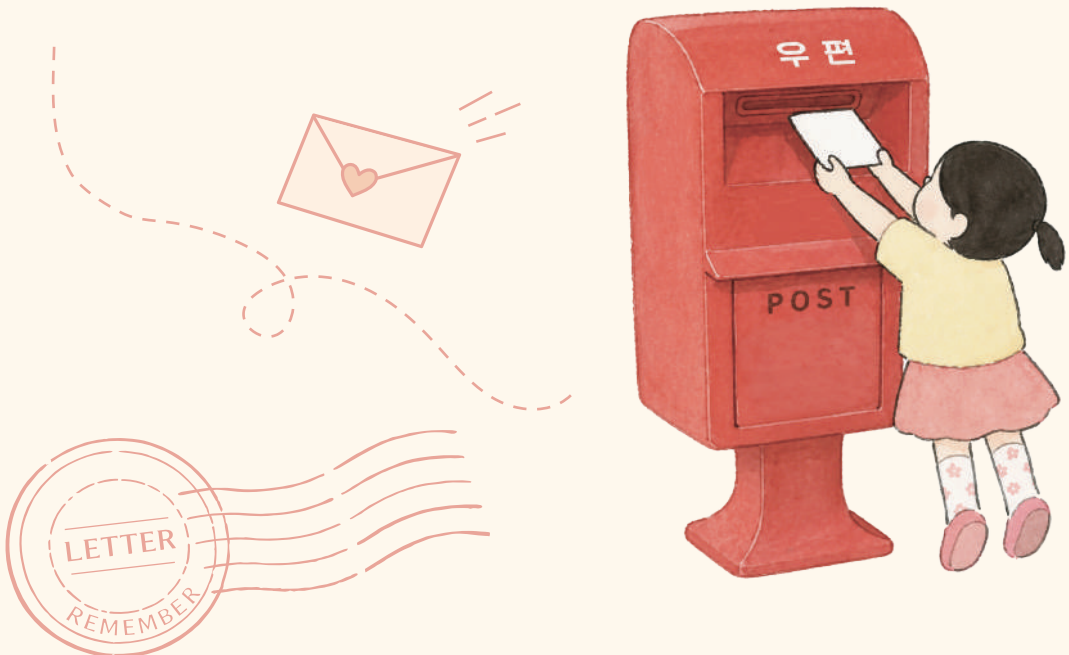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편지



정지용 시인의 시를 읽어보세요.
전시실 입구에 있는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여,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넘실거리나니."

정지용, 「오월 소식」

편지를 받아보거나 써본 경험이 있나요?

나는 _____ 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 없다면 쓰고 싶은 대상을 적어도 좋아요.

그 편지에 담고 싶었던 마음은 _____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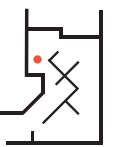
이제부터 **마음의 흔적**을 읽는 탐정이 되어

전시실의 **단서**들을 따라가볼까요?



전시실 사진 속 단서를 포착하세요!

전시 위치



전시된 엽서를 보고, 어느 나라에서 보낸 것인지 연결하여
출장 기록을 완성해 보세요.

6·25전쟁 직전, 해외 출장을 떠난 김백은 아내에게 엽서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엽서에는 각 나라의 풍경과 함께 가족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아내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태국 방콕



스리랑카 콜롬보



인도 뭍바이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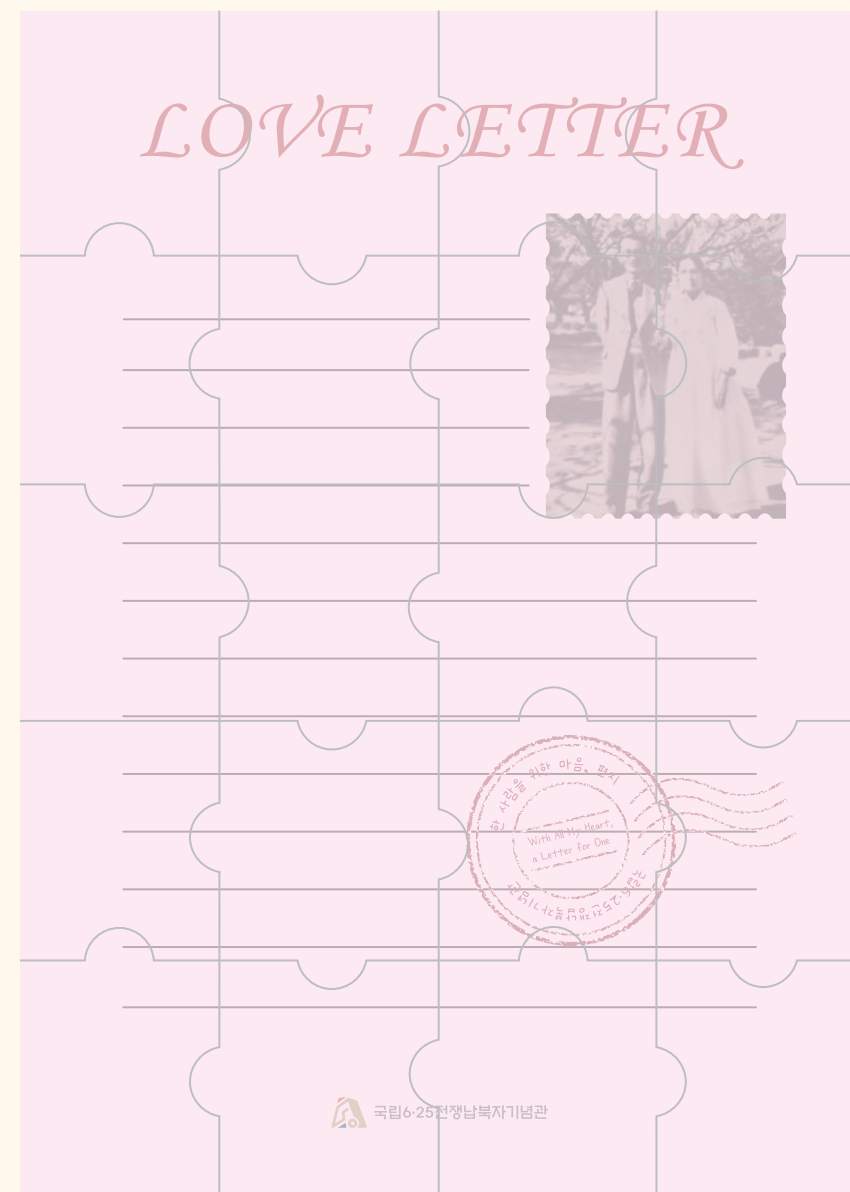


싱가포르

비밀 퍼즐을 완성하세요!



퍼즐 스티커를 활용해서 편지를 완성한 후, 해독해 보세요.



퍼즐 해독에 성공했나요?

오른쪽면에서 이 편지의 원문을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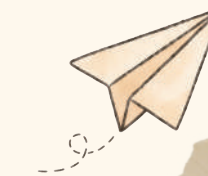
1. 만족도 조사 참여

설문 참여를 위해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2. 기념품 수령

참여완료 화면을 보여주고,
기념품을 받아주세요.



取引銀行 朝鮮銀行 朝鮮商業銀行 安田銀行 京城支店

昭和 年 月 日

동운부친

경우적이며 오직 고의 하로만 만드신 단신과 나
이름으로 봉중 갖치 갓 나 지 작별을 하
습니 하키 큰 망고 노 그러 나 성공 기를 의 인는 미
복이 라 성 공 하 기 나 배려 주신 미치 복이 나 부
하 노 어 미 남 양 의 분 안 하 오 시 해 아 하 주
하 노 동운 의 보 망 보 고 시 노 나 는 끝 리 주 나
유 유 공 과 등 차 로 상 경 하 여 화 사 와 작 각 미 나
영 에 미 오 주 노 나

No.

郵有價證 所現物賣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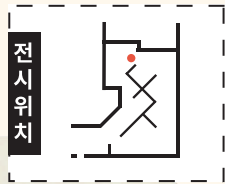
明治證券株式會社

總店東京
支店 大阪
支店 神戶
支店 横濱
支店 名古屋
支店 京都
支店 福岡
支店 仙台
支店 札幌
支店 旭川
支店 釧路
支店 函館
支店 青森
支店 岩手
支店 秋田
支店 山形
支店 宮城
支店 福島
支店 茨城
支店 栃木
支店 群馬
支店 埼玉
支店 千葉
支店 東京
支店 神奈川
支店 埼玉
支店 千葉
支店 東京





암호를 해독하세요!



옛날에는 편지를 쓸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 『초간독』과 같은 편지 작성법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용어의 뜻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 부주전 상백시 (父主前 上白是) • 편지에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며 자신을 낮추는 말
- 기체후 (氣體候) • "아버지께 올립니다"라는 뜻의 편지 첫인사
- 복(伏) • 상대방의 건강을 살피는 표현



영상 속 메시지를 해석하세요!



하늘이여,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주소서.(4분)

영상에 나오는 편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어떤 일을 계기로 쓰였을까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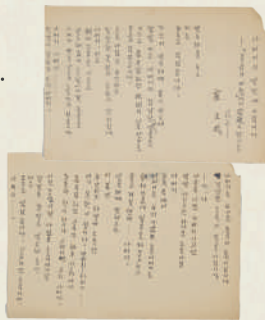
2부 닿지 못한 마음 - 납북 이후, 보낼 수 없었던 편지들



편지 속 마음을 읽어보세요!



전시실에서 최영수의 아들이 쓴 편지를 찾아 읽어보세요. 아래 사진은 아들이 어릴 적,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행복한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들은 훗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편지를 하늘에서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납북자 최영수와 아들 최규재

To. 사랑하는 아들에게

Blank lines for writing a letter to the son.



비밀 일기를 해독하세요!



하격홍의 아내 성갑순은 남편이 납북된 이후 40년 동안(1959~1999년) 41권의 일기를 남겼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남편이 납북된 후 가슴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갑순이 쓴 1959년 4월 9일의 일기를 전시실에서 찾아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기억도 새로운 나의 일,
 가 만발한 울타리 길로 식당에서 나와
 드라이브하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어언 1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토록 결혼식을 올렸고,
 이토록 가슴 아픈 생을 이어가기 위하여 호화스러운 을 베풀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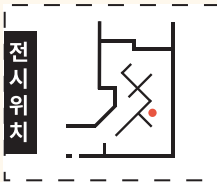


성갑순, 아내의 일기(1959~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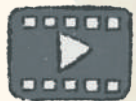




김유연 목사님과 나 (1분 30초)



전시 위치



전시실에서 두 친구의 추억과 우정이 담긴 영상을 찾아 감상해 보세요.

다음 중 영상의 내용과 다른 설명은 무엇인가요?



정답: _____

3부 답장할게요 -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도착한 편지

TO. 탐정님께

탐정님, 안녕하세요?

의뢰드릴 사건이 있어서 몇 장의 편지와 문서를 보냅니다.

이 편지들은 납북자 가족들의 당시 상황과
마음을 전해주는 기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해지지 못한 마음을
편지를 통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동봉된 문서에는 일부 숫자가 지워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시실에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지워진 숫자를 찾아
이 문서를 완성해 주세요.

FROM. 익명의 의뢰인



비밀 문서를 복원하세요!

첫 남북 이산가족 편지 교환은 ()년 ()월 ()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교환된 편지는 총 ()통입니다.

1950년 6·25전쟁 이후 2001년까지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1

입정의 작은 거인
우천(藕泉) 조완구 할아버님께
1950년 6·25가 터지고 서울에 갇혀 살던 때가
내 나이 미운 일곱 살.
고급 자가용 한 대가 할아버지를 모시러 왔다.
“할아버지! 오실 때 과배기 사가지고 와. 음!”
서울수복 열흘 전인 1950년 7월 18일 그날,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하며
독립운동하신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납북되던 날이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잃었다.
“동장이라도 새것을 달아드리는 건데...”
항망히 보내드리게 되어 민동정 두루마기를 입고
가셨다고, 어머니는 그것이 평생 한이 되었고
모든 것은 그렇게 끝났다. 그때 할아버지의 연세는
이미 일흔이었다.
일곱 살이던 나도 돌해 꼭 일흔이 된다.
무상한 세월이다.

2

내 동생 조소앙을 그리며
제 65주년 제헌절에 쓴다.
소앙. 나의 동생. 만형용하다. 너와 나는 한 부모
몸에서 난 형제지만 또한 평생 뜻을 같이 한 동지이다.
소앙. 네가 주도하여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는
민주공화제를 새나라의 모습으로 선언했다.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모두가 나란일에
참여하는 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냐.
6·25전쟁이 발발하고 너는 미처 서울을 탈출하지
못하고 북으로 끌려갔다. 그 뒤 네가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하지만 아우야.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기적을 창조했다. 민주공화제를 향한 너의 열원도
활짝 꽃피었다.
네의 꿈, 아니 우리 모두의 꿈은 헛되지 않았다.

3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아버지, 우사 김규식.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 수옥입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저는 겨우 만 일곱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할아버지의 생애는 온통 조국독립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바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대 누구도 할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지도자는 흔히 않았습니다.
하지만 6·25전쟁 중 납북되어 혹독한 추위 속에
병고에 시달리면서 변변한 치료도 못받으시고 곁에
사랑하는 가족 하나 없이 외로이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후손이 형이 있으면 조상의 키가 한 뼘 더 커진다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손녀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주셨던 큰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비밀 편지들에 숨겨진 의미는?

『백년편지』에 수록된 세 장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인물에게 쓰인 편지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1. 각 편지의 받는 사람을 모두 찾아 적어보세요.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2.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분들이었나요?

□ □ □ □ □

3. 전쟁으로 인해 이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나요?

□ □



전시를 나가며

전시 속 다양한 편지를 읽고 내가 느낀 감정을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해보세요.

슬픔

허전함

분노

답답함

안타까움

희망

울분

절절함

억울함

기타

비통함

애뜻함

공감

무거움

먹먹함



전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무엇이었나요?

보내는 이: _____ 받는 이: _____



그 편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느낌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 편지에 내가 답장을 쓴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

나의 답장

수사 완료!

전시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빛바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일기 속에 숨겨진 모든 단서들을 완벽하게 찾았어요.

오늘 우리가 찾아본 것은 단순히 지워진 글자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누군가의 간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MISSION:
ACCOMPLISHED**



“아무 염려 마오. 이만, 총총.”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만든 사람들

기획 개발
공동 개발 및 디자인
발행
발행일
누리집
문의

윤소라, 오여진
히스토리앤아트랩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26. 5.
www.abductions625.go.kr
031.930.6000